

축 사

진각종 총본산인 총인원 성역화 불사가 원만히 회향되어 깊은 축하를 드리며,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불자대중을 맞이하니 불교계 모두 자긍심과 기쁨이 가득한 듯합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향기로운 공덕을 회향하는데 동참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다른 열정이 보람을 맺어왔듯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진각종은 늘 새롭고 혁신적인 종단 행정과 정책으로 한국불교의 지평을 넓혀 왔습니다. 지난해 WFB 세계불교도우의회를 원만히 개최하여, 세계불교도들에게 진각종의 역동성을 널리 알리고, 한국불교의 위상을 고취시킨 공적이 지대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총인원 성역화불사를 회향하는 오늘은 진각종이 대사회적 실천을 하기 위한 또 하나 훌륭한 전기를 알리는 시대의 출발점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숙한 새 시대 진호국가불사를 실현하여 국민화합과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종단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일체만물이 서로 의지하여 살고 있기에, 서로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만물은 원래 한 뿌리요, 한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회당 대종사께서도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통하여 이웃과 사회의 아픔을 함께하고,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이 바로 불국토이고 현세정화임을 강조 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널리 행하며 서로 화합하고 정진한다면, 불교가 인류의 희망을 주는 범세계적 종교로 거듭나는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봉행하는 헌공불사의 인연 공덕으로 진각종 신교도분들의 자부심이 충만하기를 바라며, 뜻 깊은 원력을 세워주신 불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부처님의 가피력이 항상 함께하시어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불기2561(2017)년 6월 15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